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툰아보기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문제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시기에 포용적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회복과 포용: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포스터, 짧은 동영상, 수필 3개 부문에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권지향성 및 작품성 등을 고루 심사하여 포스터 12편, 짧은 동영상 5편, 수필 7편 등 총 24편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4개월 간 시민이 직접 쓰고 그린 인권공모전 수상작을 신고 작품에 담긴 인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심사위원 인터뷰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번 고양시 인권작품공모전 심사를 맡은 김형완입니다. 이번 인권작품공모전에 접수된 수필, 동영상, 포스터는 모두 고르게 훌륭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차별문제 등을 차분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선작을 선정하는 데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작품의 형식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전의 취지를 감안하여 메시지의 선명함과 건강한 미래지향성을 가진 작품을 우선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어렵게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선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권이 활짝 피는 고양시를 기대합니다.

수상소감

포스터 아동·청소년 부문 최우수(홍서현)

안녕하세요. 고양시 인권 작품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홍서현입니다. 다들 쉽게 오르내리는 계단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에게는 계단조차도 장애물이 되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의 작품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일반 부문 최우수(보석 팀)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우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사람과 사람,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차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 인권, 존중, 배려, 평등이 어우러져 더욱 맛깔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내역 [포스터 부문]

응모대상	수상내역	성명(팀명)	제목
아동·청소년	최우수상	홍서현	누군가에겐 절망입니다.
	우수상	김현아	인권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음영(팀)	색연필
	장려상	김민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차별
		유승연·유가연(팀)	도촬하는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음영(팀)	차별과 혐오, 정말 사라질까요?
응모대상	수상내역	성명(팀명)	제목
일반	최우수상	보석(팀)	인권비빔밥
	우수상	이유빈	아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지수	재난에 잠기는 순간
	장려상	김미선	행복한 우리집?
		이지수	관심과 소통
		홍성은	한 번의 가해, 평생의 피해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포스터 부문 수상작 돋보기

아동·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누군가에겐 절망입니다.

홍서현
장애인의 인권은 중요하며,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
인권비빔밥

보석(팀)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차별 극복과 건강의 아이콘으로 떠올렸다. 비빔밥의 각 재료들이 인권, 존중, 배려, 평등을 상징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비빔밥처럼 어우러져 더욱 맛깔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상
인권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김현아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인권의 무게(가치)는 똑같아야 한다.

일반 부문



우수상
재난에 잠기는 순간

이지수
재난은 모두에게 닥쳐오지만 사회적 약자들부터 잠식한다. 우리 모두 함께 재난을 이겨내려면 힘을 모아 이들을 도와야 한다.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상
색연필

음영(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동양인의 모습을 색연필에 빚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고 하나라도 빠지면 자리가 남는 색연필통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상
아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유빈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서 아동 돌봄시설이 비대면이 되고 아동이 점차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인권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수필 부문 수상작은 10월~12월 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